

한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이충원) '2005 경영자 세미나' 가 박완일 동국대학교 교수(한국사회교육연구회장)를 초청해 "자신있는 인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창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박의현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임종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회장 등 내빈과 4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충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인쇄업계는 인쇄문화산업과 이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들여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특성화된 기업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이제 경쟁력 없이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역설했다. 다음은 박 교수의 강연 내용이다. <편집자주>



박완일 교수

야 할 사람이다. 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개인이다. 꽃도 모양과 향기가 각각이요, 음식도 맛이 다르듯이 사람이 하는 일에 귀천이 따로 있겠는가. 저 스스로 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라, 내가 제일이다. 이 분야는 내가 제일이다.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저 하는 일에 스스로 미쳐라. 그림을 그리는 데는 화가가 제일이지만, 머리를 깎는 데는 이발사가 제일이다. 대학생을 가르치는 데는 대학교수가 제일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데는 유치원 교사가 제일이다. 기업도 경영과 관리는 관리직 사원이 제일이나 생산을 하는 데는 생산직 사원이 제일이다. 경영과 생산은 기업의 양 날개요, 바뀌이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의연해야 한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자부심은 직장에서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그래야 한다. 더욱이 가족인 아내와 자녀 앞에서도 그러해야 한다.

21세기는 기능과 다원화 시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도 일인일기 시대라는 슬로건이 있어왔다. '다양한 시대', '경쟁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한사람 당 한가지씩의 기능과 기술이 있어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세계화의 시대가 무엇인가. 안방에 앉아서 세계를 한 눈에 보고 서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특별히 잘나고 못난 사람도 없게 되었다. 대학에도 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과목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다. 그만큼 직종이 다양해졌고, 삶의 방법이 다채로워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권위와 관행과 인식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이 태어나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에 묻힐 수밖에 없다. 가히 사고의 혁명, 삶의 혁명기를 사는 것이다. 이 다양하고 급변해가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리타분한 생각들을 싹 쓸어버리고 사고의 전환이 필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가져라

눈치 보지 마라. 체면 차리지 마라. 돈 없으면 죽고 실력 없으면 못사는 세상이다. 대학을 열 번 나와도 쓸모가 없으면 실업자요, 건달이다. 그러나 지금은 직업의 귀천을 따진다면 그 사람은 지구를 떠나

요하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좋을 것이다. 한두 가지의 독특한 자기만의 기능, 기술, 그리고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의 고백이다. 나는 수십 년간 인생을, 사회를, 역사를 정의와 자유를, 삶의 가치를 강의하고 소리치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달라져야 하겠다고 느끼고 깨달았다. 더 생각하고, 더 보고, 느끼고, 부딪치고, 비판받고 공부하여 이웃과 세계를 배워야 하겠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스승을 찾고, 책을 보고 많은 소리를 듣고 조용히 앉아서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나만, 우리만 앉아 있으면 세계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 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인식하므로 그가 존재한다”는 서양 철학자 야스퍼스의 말과 같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은 나의 정신이요, 의지이다. 이 세상을 내 인생을 나의 의지대로 나의 책임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사람 눈에는 사람만 보인다. 마음이 즐거우면 천하가 즐겁고 마음이 괴로우면 천하가 괴롭다. 산에 오르면서 다리 아프다 하지 말라. 산에 오르니 다리가 아프지 자리에 누워 있으면 다리가 아프겠는가? 살려고 하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니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자기 몫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질 줄 안다면 원망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것, 만지다가 관리하다 가는 것, 영원한 내 것은 본래 없다.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세상살이가 어렵다 하지 말고,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라. 극복해야 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山山水水各完然(산산수수각완연)”이다. 산은 산대로 좋고 물은 물대로 좋다는 뜻이다.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도 훌륭하다. 부부간의 사랑도 철학이 있고 멋이 있어야 한다. 내 남

편 내 아내도 뭔가 한두 가지라도 제일인 것이 있지 않느냐, 가치가 각기 다르고 멋이 각기 다르다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부부는 돈과 명예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부부요,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부부가 될 것이다.

큰 돈이 없고 높은 벼슬이 없어도 저 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온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누가 뭐라 해도 지난 날보다는 살기가 좋아지고, 저마다 제 능력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가정의 불화는 더 커지고 못살겠다는 소리가 높아만 간다는 세상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행복의 모든 조건이 오직 돈에만 있고 감투에만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긴 병폐인 것이다. 돈과 명예는 순간에 왔다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다. 이세상의 그 누구도 금권과 권력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서로 돕고 인정하고 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들 인간에게는 무소불위와 만능의 힘이 없다. 노력의 대가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만리장파에 출렁대는 파도의 실체가 따로 있느냐? 바람에 부딪히는 일시의 현상이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땅을 치고 통곡하던 여인도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드니 남편의 죽음도 모르고 꿈에 친구들과 모여서 웃고만 있더라. 슬픔도 즐거움도 종자가 없고 원망도 자극도 그 본래의 실체가 없다. 순간마다 변해가는 마음의 장난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해가는 것들, 실체가 없는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마라.

사장의 종자가 따로 있느냐? 가난한 사람도 돈을 벌면 재벌이 되고 천하재벌도 망하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다.

누구라도 당선되면 국회의원으로 그 이상도 되고 떨어지면 거리의 낭인이 된다. 세상만사는 제 하기에 달렸다. 사람의 운명이란 본래 정해진 바가 없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 원망해야 소용없고 탓해 봐야 가슴만 아프다. 우리의 속담에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맑은 하늘만 원망할들 무슨 소용이

●●● “내가 인식하므로 그가 존재한다”는 서양 철학자 야스퍼스의 말과 같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은 나의 정신이요, 의지이다. 이 세상을 내 인생을 나의 의지대로 나의 책임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사람 눈에는 사람만 보인다. 마음이 즐거우면 천하가 즐겁고 마음이 괴로우면 천하가 괴롭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니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자기 몫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질 줄 안다면 원망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다.





1. 이충원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홍우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3. 최창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4. 경영자 세미나 모습.



요, 도피와 은폐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 왜 불안하고 답답한가, 무엇이 불안이며 무엇이 답답함의 근원인가, 이것이 문제다. 이 문제의 해답 없이는 미국에 가도 불안하고 구만리 창천을 날아도 답답하다. 이대로 설사 천년을 산다 해도 그 인생은 굴속 같은 밤일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시원하고 영원히 자유로운 것인가? 그 길은 벗어나는 길 뿐이다. 그 방법은 자기혁명의 길 뿐이다.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아집의 소견을 버리고, 아귀의 뱃속보다 더 욕심스러운 탐욕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우물 안 개구리가 대해(大海)속에 춤추는 것이다. 짓밟힌 허공엔 자국이 없고, 봄에 핀 꽃은 꽃값을 받지 않는다. 원망하고 닳한다고 내 배가 부르고 내 인생이 즐거워 질 수 없다. 사람은 아침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저녁에 잠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때문일 거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시간 시간마다 새로운 충전을 해야 한다. 마음의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한다.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느냐? 씨앗과 종자가 따로 있느냐? 아니다, 마음이 문제다. 정신이 문제다. 신념이 문제다. 결의와 각오가 문제다. 죽겠다

있느냐? 손목이 부러지도록 땅을 파서라도 물을 얻어야 한다.

친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도리는 제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입지전에 나올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일생을 오직 한 생각으로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 천신만고 끝에 천하의 민심을 얻은 사람, 열여섯 어린나이에 집을 뛰쳐나와서 당대 제일의 재벌이 된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고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더불어 살자

목이 마른자여 스스로 우물을 파라. 공

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만지다 가는 것, 관리 하다 가는 것, 영원한 내 것은 없다. 먹어봐야 입어봐야 백지 한 장 차이다. 함께 살자. 더불어 살자. 영원한 나는 없다. 영원한 내 것은 없다. 혼자만이 살 수는 없다.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 모두 슬픔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우리로 이 웃으로 함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막히고 답답한 것이 너무나 많다. 없는 사람은 얻지 못해서 답답하고, 가진 사람은 놓치지 싫어서 답답하다. 사람은 모두 자기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해 죽겠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을 잊기 위해서 술과 노래와 도박을 찾고 관상과 사주로 위로를 받거나 낚시와 바둑으로 시간을 잊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 한번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자. 그것으로 속이 다 트이고 만사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모두 다 순간이

는 사람은 죽고 살겠다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 여기저기서 죽겠다 소리가 들린다. 이 무더운 여름에 갈 곳이 없어서 남산을 걸어서 세 번을 돌아도 해가 그대로 떠있더라는 어느 실직자의 탄식도 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무엇이랴도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고 하겠다는 자신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일제 말기에 겪었던 굶주림과 핍박을 6.25사변 때 잣더미 속에서 사경을 헤매이던 그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철없이 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지나간 십수 년간 우리가 저질러온 방종과 방탕과 퇴폐와 타락과 부정과 부패가 점철된 혼돈의 결과가 그 안의 준엄한 심판이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슬프게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가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저 자신에게 물어 보고 생각하며 살 때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나이 들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지만 한다. 요즘 같은 세상은 제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렵다. 사람이 기(氣)가 죽으면 살아도 송장이요, 신념 없는 소리는 악을 써도 병어리나 다름이 없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짐승과 같고 뜻이 있는 인생은 가난해도 행복하다. 오늘의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뜻을 알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잘 먹고, 잘 쓰고, 으시대고 뽐내면서 큰소리 쳤다고 하자.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더 잘 입고, 더 큰소리로 호령을 하고 싶을 것이다. 조금만 더 라는 욕망과 욕심은 죽어서도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이라는 것, 사람답다는 의미는 간 곳이 없고 돈과 벼슬의 가치만 남는 세상, 오직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기능과 기교만 남은 것인가? 그것들을 위한 권모와 술수와, 아부 아첨만이 판을 치는가? 이 이수라장에서 갖고 얻는 자는 성공한 자요, 출세한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들은 무능하고 쓸모없는 바보스러운 패배자더라는 말인가?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닦할 수 있는

가? 오직 진정한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직 인간만이 창조의 힘을 가졌다고 한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능력을 계발하며 그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한다는 말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는 만고의 명언이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운명의 주인은 ‘나’ 이고 내가 운명의 창조자인 것이다.

바람은 스쳐가고 구름은 흘러가기 마련이다. 오직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우리들 인간의 의지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야 한다. 매화는 눈 속에 피어야 아름답고 들국화는 모진 서리를 맞을수록 그 향기가 더욱 좋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에 약하고 허수아비는 자기소리를 내지 못한다. 꾸며진 가락은 원숭이 노래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것이 상식이다. 아무리 꾸미고 가꾼들 소금 맛이 달 수는 없는 것이다. 저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쉽고 평범한 상식이다.

그러나 그 상식들을 외면하려 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 길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원망하지 말고 닦하지 마라.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오직 한번 뿐인 인생을 한번 뿐인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 앞에서 말 했듯이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서양속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모르고 산다고 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만지다가 관리하다 가는 인생,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누가 더 잘나고 못났느냐? 순간의 꿈이요, 허상일 뿐이다. 가슴을 펴자! 당당하게 살자! 영원한 시간, 가식없는 세상의 주인으로 살자!

(장홍일 기자)

●●●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서양속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모르고 산다고 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만지다가 관리하다 가는 인생,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누가 더 잘나고 못났느냐? 순간의 꿈이요, 허상일 뿐이다. 가슴을 펴자! 당당하게 살자! 영원한 시간, 가식없는 세상의 주인으로 살자!

